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 속속 정상화

## 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 입구 차단 시설 철거 이달 4곳 추가 통행 재개 내년 상반기 노면 재정비 완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가 속속 정상화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순차적으로 포장·정비를 마친 도로에 대한 차량 통행을 신속 재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3일 동구 산수오거리 인근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관련 시민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미정·홍기원 광주시의원, 임택 동구청장, 지산·산수·동명동 주민자치회 등 시민이 참여했다. 그동안 산수오거리 인근 도시철도 공사 구간의 도로 교통을 차단한 PE방호

벽과 라바콘 시설물을 치우고 도로 개방의 첫 시작을 알렸다. 공사 기간 동안 양복 4차로로 통행되던 차도는 8차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방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개방을 위해서는 통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경찰청 협의,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일정 구간 확보 등이 필요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방한 도로에는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포장이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공사 구간과 인접 차로의 전면 재포장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날 필문대로(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 입구 삼거리) 도로 개방을 시작으로 이달 중 상무중앙로(BYC빌딩 주변), 금화로(금호동 중흥1단지-월드컵경기장 앞), 대남대로(봉선동 남광주농협-명지로도널드), 월드컵서로(광주FC경기장 주변) 등 4개소 약 2.4km의 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교통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겨울철 폭설, 기온 하강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새해에도 상무중앙로(유덕교하부-유촌동), 필문대로(조선대사거리-지산사거리), 서암대로(서방사거리-광주역 행복주택) 등을 개방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전체 구간 도로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당초 예상보다 도로 복구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암지반 등 지장물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라

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번 도로 개방은 단순히 교통을 재개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견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공사로 많은 불편을 겪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SI 언어와 한글산업화’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문인협회, 국제펜광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SI 언어로서의 적합성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광주시의회 제공)

##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환영”

금지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위해 역량 집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대책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나포타 무관세 기간 연장,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및 세제 지원, 안전 규제 합리화, 고부가 스펙트럼 분야 연구 개발 확대 등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했던 핵심 내용이 다수 포함돼 앞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큰 힘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하고 산단 부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위기대응 추진단도 구성·운영해 현장 목소리에 신속 대처키로 했다. 김 지사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전남 경제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의 기동”

이라며 “정부와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산업 재편, 탄소포집활용(CCUS) 등 대규모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대한 조속히 지정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전력·용수 확충 등 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13일 전략간담회에서 고부가 친환경 산업 재편, 탄소중립형 산단조성, 산업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 36개 사업 5조6천억원 규모의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도시재생 공모 전국 최다 5곳 선정

지역특화재생 장성·‘뉴·빌리지’ 광양·담양·장흥·강진 2029년까지 총 1천122억원 투자·국비 673억원 확보

전남도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전국 최다인 5곳이 선정돼 총 67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특화재생 분야에 서 장성군 ‘편백으로 치유하는 큰푸른장성’ 1곳과 뉴·빌리지 분야에선 광양시 ‘주거정비로 새로운 도약, 그린에너지 생활마을’, 담양군 ‘JIU(지유)와 함께 살아가는 담양 대치빌리지’, 장흥군 ‘생활권 중심지로의 재도약, 머무름이 행복한 관산읍’, 강진군 ‘살기 좋은 행복 보금자리, 목리’ 등 4곳으로 총 2개 유형 5곳이다.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천122억원(국

비 673억원, 지방비 449억원)을 투입해 지역 브랜드 거점 구축, 주민 정주환경과 기반·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 6곳 중 전남에서는 1곳이 선정됐다. 장성군은 250억원을 투입, 축령산 청정자연 목재와 편백 등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연관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올해 신규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와 개별 주택 정비를 지원해 노후주

거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거주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담양군·장흥군·강진군에 872억원을 투입해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21개 시·군 53곳에 7천544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11곳이 완료됐고 42곳은 정주환경 개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인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생활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역사·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가격 폭락 전복 양식어가 긴급 지원

전남도, 3천441어가 경영안정자금 30억 투입

전남도는 23일 “가격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총 3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9개 시·군 3천441어가의 전복 양식어가 대상이다.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kg당(10마리) 3만9천250

원이었던 전복 가격은 2023년 3만2천500원, 올해 12월 2만5천원으로 떨어져 2년 만에 36%나 하락했다. 이는 전복양식 어가의 생존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산비 부담 증가와 소비부진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긴급 지원을 통해 전복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위기를 극복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광주시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월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여객시설 등 104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장비·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 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 유지관리 상태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변은진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